『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 서평 | 10면 문화

30여 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오가며 유라시아 역사를 연구해 온 강인욱(역사학) 교수의 신간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강인욱의 유라시아 빅히스토리』가 지난 30일 출간됐다. 강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발해를 한·중 역사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발해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프랑스 거리 시위, 학교 봉쇄에 교환학생도 영향 | 9면 지역사회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로 현지 교환학생들의 수업과 일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우리학교 교환학생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환경 악화와 생활비 부담 등 시위의 배경 및 향후 프랑스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제 1770 호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대학주보



서울캠 선본 anKHor(앵커)는 타전공 P/NP 평가 확대 ·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박류빈 기자)

언론 3사 주최 총학생회 후보 공청회
'대학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확대'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오늘부터 사흘간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를 앞두고 지난주 열린 후보자 공청회에서 국제캠 KHORD(코드) 선본과 서울캠 anKHor(앵커) 선본은 공약을 밝혔다. 두 선본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양쪽 모두 공약한 등록금 심의 절차와 총장 선임제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밝힌 구체적인 방안을 비교했다.

국제캠 선본 KHORD(코드)
수강신청 마일리지제 개선 · 양캠 학문 단위 재배치 공약

국제캠 공청회는 지난 16일 국제경영대학관에서 진행됐다. 공청회는 코드 선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약 설명, 언론사 및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코드 선본은 2027학년도 1학기 도입 예정인 수강신청 마일리지제 개선을 공약했다. 학생들은 '희망 과목담기' 기간에 수강 희망 과목에 마일리지를 배분하며, 신청 인원이 학년별 정원 이내일 경우 신청자 전원의 수강이 확정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면 마일리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30%만 수강이 확정되기에 이때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남은 자리를 두고 본 수강신청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학생의 이중 수강신청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묻자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정후보는 "30%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며 "늦어도 2027학년도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 의견을 수렴해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드 선본은 양캠 학문 단위 재배치도 공약했다. 과거 학문 단위 재조정 당시 교수진과 일부 단과대학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김정후보는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보고 있다"며 "저희가 추진할 일은 검토를 공식 협의에 올리고 대학의 판단 근거와 학생 의견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 부후보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양 캠퍼스 학생 대표와 대학 관련 부서가 먼저 실무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선본 anKHor(앵커)
타전공 P/NP 확대 ·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공약

서울캠 공청회는 지난 19일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앵커 선본이 정견을 발표하고 학내 언론 3사가 제시한 키워드에 답했다. 2부는 언론사 및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 다전공 의무 이수제와 관련, 앵커 선본은 온라인 강의 확대를 통해 강좌를 증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본부와 단과대학이 이미 온라인 강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학의 역할을 묻자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정후보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의 증설을 원하는지 조사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전공 선수과목의 온라인 강의 개설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좌 증설과 교원 확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면 다전공 수강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

양캠퍼스 총투표 23일~25일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2027학년도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 투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서울캠은 온·오프라인과 QR 투표를 병행한다. 국제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구에는 각각 한 개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등록했다.

서울캠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받았다. 선거운동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투표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되며, 최대 이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자체 징계와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한 개정 선거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총학생회장 후보로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씨가,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김대현(경제학 2022) 씨가 '앵커' 선본 소속으로 출마했다.

서울캠 중선관위 신창훈(행정학 2021)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잠깐의 고민과 선택이 내년 한 해 경희의 변화로 이어지니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로 학생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국제캠은 지난 2일 총선거를 공고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총학생회·특별대표기구·단과대학 선거 투표일은 23일부터 사흘간, 전공·학과 선거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총학생회장 후보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씨가, 부총학생회장 후보 민병훈(국제학 2025) 씨가 '코드' 선본 소속으로 출마했다.

18대 총장 선임, 구성원 참여는 어디까지? 아쉬운 후보 검증 절차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 **제18대 총장선임 총장 후보, 누가 어떻게 고를까?** – 구성원 대표 의견



아쉬운 후보 검증 절차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제18대 총장 선임을 1년여 앞두고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 투표권 도입이 공통 공약으로 나왔다. 지난 호에서는 제16대와 제17대 총장 선임 방식과 변화된 과정을 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짚는다. 우선 총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의 뜻은 어떻게 반영될지, 두 번째는 구성원은 후보의 대학 운영계획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직접 물을 수 있을지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와 직원 노조 · 교수의회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립대의 사례를 함께 살폈다.

대표 교체기 맞은 총학생회 · 직원 노조 · 교수의회

각 주체가 제안하는 구성원들 간 투표 반영 비율과 참여 범위

올해 양캠에서는 차기 총학생회 장단을, 교수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을 뽑는다. 직원 노조인 경희대학교 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도 각각 대표 선거를 치른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앵커'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정후보는 학생 직접투표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제캠 총학생회와 공동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캠 선거운동본부 '코드'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정후보는 지난 16일 정책공청회에서 학생 표를 25% 반영해 총장 후보의 최종 순위를 정하자고 했다. 이는 교수·직원·학생·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종합 1위에 오른 후보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을 임용할 권한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학생 표 25%를 반영하는 방안을 학교법인과 어떻게 협의할지 묻는 질문에 김 정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 양 캠퍼스 학생들의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 뒤 교수·직원 대표, 학교법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인 측은 아직 제18대 총장 선임 방식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24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한 테크노경영대학원 이광봉 행정실장은 "구성원들이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선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학생지원센터 한상 차장은 "집단별 투표 반영 비율을 협의한 뒤 교수·직원·학생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재선된 전국대학노동조합 김종민 경희학원지부장은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의 후보 공개모집과 전문 심사, 숙의를 통한 후보 압축 절차를 유지하되 최종 후보 선정에 구성원 직접투표 결과를 반영하자"고 말했다.

제16대엔 구성원 투표 제17대엔 대표 추천

학생 대표 참여에도 부족했던 학생 의견 수렴 기회

제16대 총장 선임 때 학생과 직원은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 세 명 중 한 명을 투표로 정했다. 이 한 자리를 정하는 데 학생과 직원의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나머지 두 명은 교원 투표로 정했고 세 후보 가운데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지는 이사회가 결정했다.

제16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에 각 집단의 대표가 몇 명씩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교원과 직원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총추위에는 교원 대표 15명과 법인·직원·학생·동문 대표 각 5명이 참여했다. 2023년 교수의회가 교원과 직원 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당시 총추위 구성 비율을 두고 직원 응답자의 61%, 교원 응답자의 3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관련기사: 총장후보 선거 설문 교·직원 의견 보니/대학주보 1709호/2023.09.18.).

제17대 총장 선임 과정에는 구성원 직접투표가 빠지고 이사·교수·직원·학생·동문 각 5명이 총추위에 참여해 예비 후보를 추천했다.

총추위의 학생과 교수 참여 비율은 대학마다 달랐다. 서강대는 2024년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 위원 29명 가운데 교수 대표가 15명, 학생 대표가 2명이었다. 직원·동문·예수회 대표는 각 4명이었다. 올해 제22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규정상 위원 30명 중 교수 대표가 15명, 학생 대표가 3명이다.

우리학교는 총추위에 참여하는 학생대표가 5명으로 절대적 숫자는 비교적 많았지만, 선임 방식에 의견을 낼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9월 국제캠 총학생회는 대동제에서 사흘간 '학생이 바라는 총장상'을 물었고, 당시 문정식(중국어학 2018) 총학생회장이 축제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구성원 대표들이 선임 방식을 논의했을 때 최종안에 대한 학생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는 없었다.

당시 김도균 교수의회 의장은 "구성원 대표 간담회부터 이사회 확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7대 후보 명단 공개에도 운영계획 검증엔 한계

제18대 후보에게 직접 묻는 정책간담회 · 공개토론회 제안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 법인은 후보자 보호를 이유로 초빙·공모 단계에서 후보 명단과 후보별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구성원이 최종 후보 다섯 명의 이름을 확인한 건 2023년 12월, 숙의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행정지원단이 전체 메일을 보냈을 때였다. 이후에도 구성원이 선임 전에 후보의 대학 운영계획을 직접 듣고 질문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후보를 심사한 추천위원들마저도 심사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한 추천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추진하려는 정책을 담은 자료를 본부측에 요청하고 나서야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추천위원은 "추가로 받은 자료도 2~3장 분량의 자기 추천 수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비공개 원칙', 구성원 참여 수준 낮춰/대학주보 1716호/2024.01.24.).

제16대 총장 선임 때는 구성원이 같은 질문에 후보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직접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 2019년 11월 국제캠 정책발표회에서 당시 전완주(일본어학 2011) 총학생회장은 이공계와 예체능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물었다. 이어 후보들은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을 확충할 방안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였고, 구성원들이 사전에 총추위 행정지원단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에도 답했다.

이화여대는 2024년 제18대 총장 후보 추천 선거에서 교원·학생·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영상은 투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 가지 못한 구성원도 후보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 지부장은 직원들이 후보에게 인사제도와 노동조건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또한 교수의회 김양진(국어국문학) 의장도 학교가 온라인에 후보별 공약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 공약을 두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학문단위 재배치 · 교양 절대평가 민감한 공약도 다수

1면에서 계속 ➜

앵커 선본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비율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대학생활 정보와 학생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경희인플러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에 성적·장학금 조회와 교내 공지 확인, 시설물 예약, 모바일 학생증,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앱과의 차이점을 묻자 최 정후보는 "교내외 학습·휴게 공간과 학과별 제휴 혜택 등을 안내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양캠 선본 공통 공약
등록금 심의 절차 개선 · 총장 선출에 학생 투표 반영 약속

양캠 선본은 공통 공약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 ▲2028년 총장 선출에 학생 투표 반영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타전공 P/NP(패스/논패스) 평가 확대를 내걸었다. 양캠 선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선본은 모두 등록금 심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드 선본은 학생 대표가 등록금 인상안 마련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정후보는 "총학생회 출범 직후 협상이 시작되면 새로 임기를 시작한 학생 대표가 이전 인상분 집행 내역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년도 2학기부터 협의를 시작해 등록금 인상률 산출 근거와 집행 내역을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앵커 선본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외부위원 선임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생위원과 외부위원의 사전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등심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 부후보는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선임한다는 기준이 모호해 우리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인사도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8년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출 과정에 학생 직접 투표를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드 선본은 학생 투표 결과를 25% 반영해 최종 단계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앵커 선본은 후보 추천 단계에서 학생이 직접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후보는 "구성원별 투표 결과를 정해진 비율로 합산하고 그 중 학생 투표 결과를 25% 반영해 전체 1위를 정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 정후보는 "국제캠 총학생회와 공동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와 학생 정책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선본은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도 공약했다. 이는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메이트'도 추진했던 공약이다. 기존 추진 방안과의 차이를 묻자 김 부후보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선임으로 양 캠퍼스를 총괄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후보는 "올해 안에 절대평가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캠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후마니타스칼리지 혁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학생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선본은 또한 타전공 과목을 수강할 시 P/NP(패스/논패스) 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은 전공탐색2 교과목에서 타전공 기초 과목을 들을 시 등급 대신 P/NP(패스/논패스)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학기에 3학점으로 제한돼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를 모든 전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전공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대현(경제학 2022) 부후보는 "학생들이 성적 부담 없이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되 재학 중 최대 6학점인 현행 기준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알립니다

대학주보 · 대학본부 간담회

지난 16일 총장실 주최로 대학주보와 본부 주요 보직자 간 취재 협조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장실 문병원 행정실장, 총장실 박우현 행정부처장, 권은정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영낙 단과대학 행정실협의회 서울협의회장, 오세윤 인사처장, 이준호 인사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주보에서는 권도연 편집장과 이서현·김민영·서라수·김가빈·박류빈 팀장, 신동면 신문방송국장, 김종현 행정실장이 함께 했습니다. 대학주보는 최근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취재가 차단되던 상황을 전하며 대학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서면 답변에만 응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등 언론활동의 특성상 "대면이나 유선 소통에도 열려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 취재에 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직원 개인의 발언이 대학의 공식 입장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담과 인터뷰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대학주보는 기사 전문을 미리 확인받는 것은 편집권 영역이라 어렵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해당 부분을 취재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장실 문병원 행정실장은 "대학주보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소통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1월 중 총장과 교내 언론 간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진행되는 교무위원 연찬회 등 대학의 주요 행사에 구성원 대표와 함께 교내 언론 역시 취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주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내부 취재 원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대학과 성실히 소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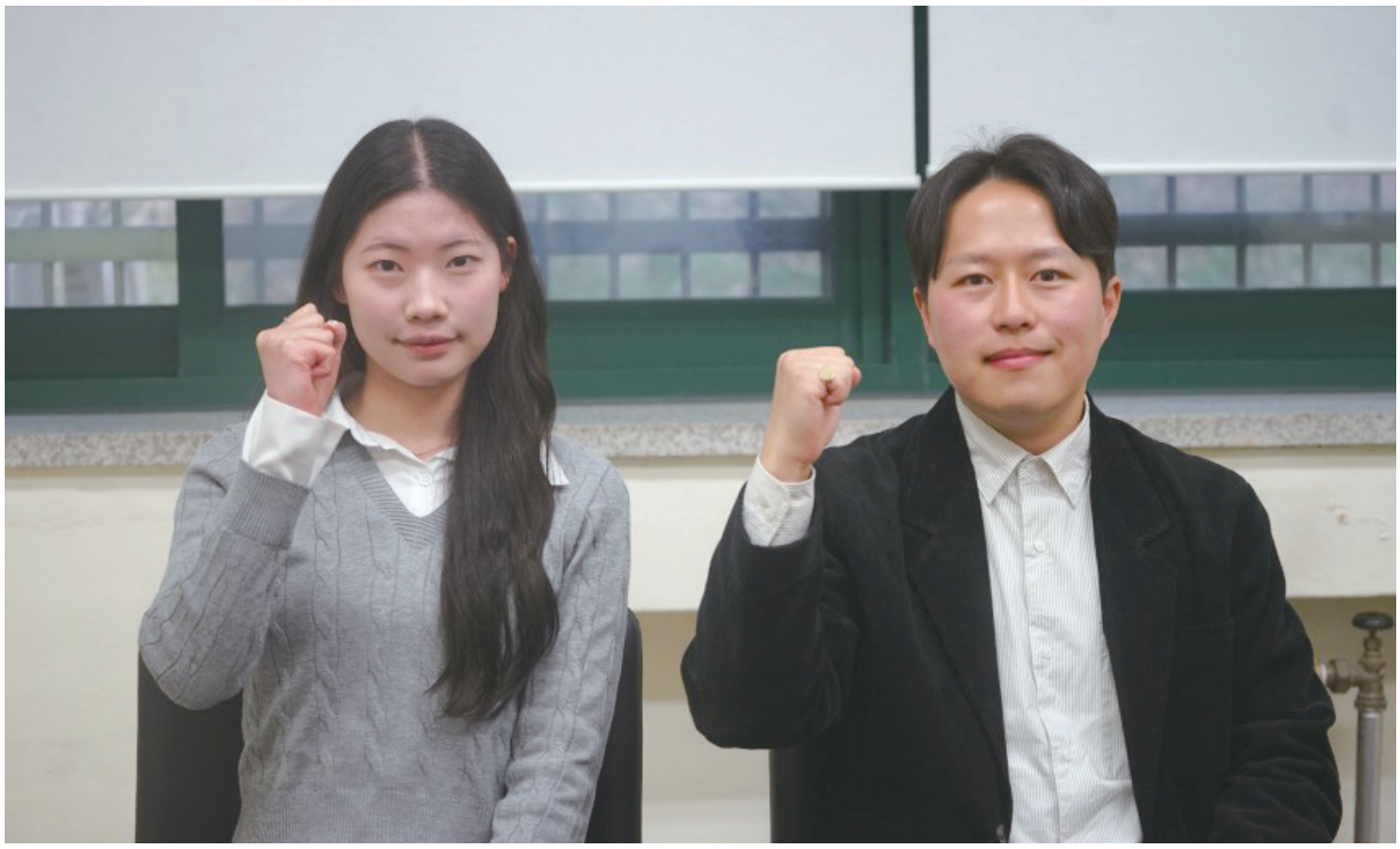




학점포기제, 전 교과목으로 확대 '성과'
다전공 지침 마련 · 교양 절대평가 확대는 과제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총학 공약점검 – 국제캠퍼스


총학은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기에 학교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국제캠 총학생회(총학)의 공약을 점검했다. 단순 공약 이행률보다는 ▲학점지우개 도입 ▲다전공 의무이수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요 공약을 위주로 점검했다.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과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8개월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점, 차기 총학에 남기고 싶은 과제를 들었다.

학점지우개, 필수과목까지 확장 신청은 7학기부터

정 회장은 임기 중 달성한 공약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학점지우개'를 꼽았다. 양캠 총학은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최대 6학점까지 이미 받은 성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학기부터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전공·교양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에서 졸업 전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양캠 총학이 공약을 내걸 당시에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점포기 대상이 폐지돼 다시 들을 수 없는 과목 등으로 제한됐다. 총학은 학생들이 성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분야의 수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공약을 내걸었다.

대학본부와의 협의에서 양캠 총학은 재학생 3,82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했다. 정 회장은 "공식 면담 외에도 담당 부서와 자주 만나 학생들이 어떤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원하는지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공약보다 대상 과목은 넓어졌고 신청 시기는 두 학기 늦어졌다. 정 회장은 "5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과 대학본부가 함께 협의한 끝에 전공필수 과목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며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기에 학교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전공 의무 이수 첫해 가이드라인 마련은 과제로

다전공 의무 이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 신·편입생은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가운데 하나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은 학과별 다전공 선발 상한을 입학 정원의 30%에서 50%로 높였으나, 학생이 지원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희망 학과에 따라 다르다.

정 회장은 "출마를 준비할 당시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임 후에는 총장에게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고 교육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융합교육을 확대하려는 대학의 방침에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 문제까지 얽힌 상황에서 당초 요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학이 다전공 선발 상한을 높였지만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별도의 선발 요건을 둔 것으로 봤다. 그는 "제도를 처음 겪는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대학본부와 총학의 역할이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26학번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예인 섭외에 쏠린 관심 학생이 만드는 대동제의 부재

정 회장은 대동제를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역설적으로 연예인을 섭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이 축제를 준비하며 느낀 고민이었다. 정 회장은 "초청 가수 없이 학생 공연만으로 무대를 꾸리면 관객도 공연 동아리 관계자에 머물기 쉽다"며 "학생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가수를 불렀는지가 대학 간 비교의 기준이 되면서 총학도 섭외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 준비한 개인기를 선보이던 예전 축제들을 떠올리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대동제의 의미가 옅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한데 모여 줄다리기를 하던 축제가 그립다고 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예전과 같은 참여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을 축제에서는 공연을 보러 온 학생과 부스를 찾은 학생이 한자리에서 축제를 즐길 방법도 고민했다. 대운동장 공사로 노천극장에 공연 무대를 마련하면서 주차장에 모인 부스와 노천극장의 물리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공연장을 럭비장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문에서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총학은 주차장에 테이블과 중계 스크린을 설치해 부스를 찾은 학생들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 회장은 "버스 정차 위치까지 바꿔 학생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게 했지만 운동장에서처럼 지나가던 학생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보던 분위기까지 살리기는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양 절대평가 확대 협의 내용은 차기 총학에

정 회장은 이행에 있어 가장 아쉬운 공약으로 교양교육 절대평가 확대를 꼽았다. 양캠 총학은 필수교양과 배분이수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3월 국제캠 보궐선거 정책공청회에서도 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의견 차로 절대평가 확대가 무산된 전례를 어떻게 넘어설지 질문에 당시 정 후보자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협력해 공약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정 회장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전·현직 부학장을 만나 교양교육 개선안을 전달하고 이메일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제안에 긍정적인 답도 받았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조직 개편과 인사 변동이 겹치면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결국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부재하다 보니 변화를 확정 짓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고 어디서 협의가 멈췄는지 정리해 차기 총학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학 차원이나 아니면 학생 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생 요구 반영한 학점포기제 확대 '성과'
자기설계학점제 도입 · 해외 교류 활성화는 다음 과제로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총학 공약점검–서울캠퍼스



총학은 "남은 임기 동안 이행하지 못하는 공약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라수 기자)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의 공약을 점검했다. ▲학점지우개 도입 ▲학생 참여형 축제 등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과 한수연(호스피탈리티경영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8개월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점, 차기 총학에 남기고 싶은 과제를 들었다.

학생 목소리로 바꾼 학사제도 학점지우개 도입으로

신 회장이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것은 학점포기제도 확대다. 이번 학기부터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전공과 교양필수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에서 졸업 전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총학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돼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 등으로 제한됐던 학점포기 대상을 전 교과목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본부는 지난 4월 제도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총학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생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도입을 확정했다.

총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본부에 전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 3,822명의 답변을 모두 읽고 분석해 제도 확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며 본부를 설득한 과정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한 부회장은 "사례를 일일이 읽으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제도의 확대로 구제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례를 하나씩 매일 메일로 보내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이 만드는 대동제 연예인 섭외 중심 운영은 고민

한 부회장은 임기 중 학생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한 활동으로 대동제와 해커톤을 꼽았다. 특히 대동제에서는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총학은 축제 기간 방탈출과 카드게임, 축제 곳곳에 숨겨진 카멜레온을 찾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캠퍼스타운에 입주한 창업 기업이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창업 플리마켓도 마련했다.

학회와 협업해 축제 정보와 공연 시간표, 노천극장 혼잡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구축했다. 신 회장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축제를 바라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 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대기 공간을 마련해 도로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상황을 줄이고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썼다. 1학기 대동제에서는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을 예상하지 못한 운영상의 아쉬움도 짚었다.

총학은 학생 참여형 축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역대 총학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올해 봄 대동제 예산은 교비 기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늘었다. 신 회장은 "연예인을 부르지 않고 예산을 아끼고 싶었으나, 학생들이 연예인들을 원하고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에 따라 총학생회를 평가해 섭외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 역시 연예인 섭외에 쏠리는 관심이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강의실 밖 배움 인정과 해외 교류 확대 자기설계학점제 · 복수학위는 과제로

학생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 및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기설계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이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현재 대학의 학점 인정 방식이 강의실 안에서 이뤄지는 학습에 한정돼 있어 강의실 밖에서 얻는 배움도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우리 학교의 학점 인정 제도는 지나치게 강의실에 국한돼 있다"며 "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한 부회장은 해외대학 복수학위제도 활성화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아쉬운 공약으로 꼽았다.

총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국제교류팀과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 부회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협상 대응 TF 운영 학생 의견과 협상 경험은 차기 총학에

등록금 협상 대응 TF 운영도 차기 총학에 남길 과제다. 기존 구조는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들어가 협상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총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캠 총학과 함께 TF를 발족해 등심위 개편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려드리는 게 좋겠지만 차기 총학생회가 이어받을 전략인 만큼 임기 중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총학은 임기 중 수집한 학생들의 의견과 본부와 협상한 경험을 차기 총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길 원하는 지에 관한 수요조사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데이터로 정리해 인수인계하겠다는 것이다.

본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대응 전략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학생 의견 수렴도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해당 과정은 임기 중인 12월 말 중 진행되거나 차기 총학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 확대의 조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선발 · 한국어교육 · 전공탐색 체계 손질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 3월 우리신문은 최근 4년간 우리학교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 735명 감소하며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유학생에 편중된 유치구조와 입학 이후 교육체계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후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발과 교육체계를 손보고 있다. 이번 '유학생 확대의 조건' 연재 1회에서는 최근 달라진 유학생 교육 정책을 살펴본다. 2회에서는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 본부의 목표와 실제 학생을 교육하고 수용하는 단과대의 준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일반 한국어 트랙	글로벌열린전공
입학	TOPIK 3급 이상	TOPIK 최저급수 없음[1]
1학기	TOPIK 4급 미만 → 학강 12학점·주 12시간	한국어 10학점·주 20시간 + 전공탐색
2학기	학강 종료 → 일반 전공·교양 수강	4급↑ → 전공·교양 수강 4급 미달 → 학강
2학년	기존 소속 학과에서 계속 수학	TOPIK 4급↑ → 희망전공 이동
졸업	TOPIK 4급↑	한국어트랙 졸업기준 적용

[1] TOPIK 성적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 필요.

중국인 유학생 비중 줄고 모집 국가 다변화 나선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유학생) 수는 ▲2021년 3,221명에서 ▲2026년 2,433명으로 5년 새 788명 감소했다.

우리학교는 2024년까지 외국인 학부생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고려대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국제처 글로벌입학팀 최창용 팀장은은 "2026년부터는 유학생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알리미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88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국가에 편중됐다는 국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1년 전체 유학생 대비 중국인 학부 유학생은 77%에 달했지만 올해는 60.7%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중국인 유학생이 537명 감소하는 사이 미얀마 유학생은 61명에서 217명, 몽골은 34명에서 76명, 우즈베키스탄은 67명에서 92명, 카자흐스탄은 18명에서 48명으로 늘었다.

글로벌입학팀은 내년에도 우수학생 선발과 모집 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2027학년도부터 최상위 장학인 GES 장학을 신설하고 국가별 우수고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미얀마 등에서도 우수학생을 유치해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접 없애고 서류 100%로 학업·진로·공동체역량 함께 본다

내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는 새로운 선발 방식도 적용된다.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비예체능계열 외국인 신·편입학전형은 화상면접 전형으로만 진행됐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면접은 폐지되고 비예체능계열 전 모집단위에 서류평가 100%가 적용된다.

평가요소는 ▲문화인(학업역량) ▲창조인(진로역량) ▲세계인(공동체역량)으로 나뉜다. 학업역량에서는 성적과 과목별 전공적합도, 언어능력을 평가한다. 진로역량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 동아리·대회·인턴·자격증 등을 토대로 전공에 대한 이해와 준비 정도를 살핀다. 출석과 추천서, 봉사활동 등은 공동체역량 평가에 활용한다.

글로벌입학팀에 따르면 서류평가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내신 성적과 한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반영하고, 정성평가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여러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 팀장은 기존 면접 방식에 대해 "외국인들을 면접으로 평가하면 학생이 가진 역량보다 한국어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통해 성적 추이나 발전 가능성,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전형으로 선발된 첫 학생은 2027학년도 1학기에 입학할 예정이다.

10년 된 학강 손질 공통교재 · 운영주체 마련

다만 선발 방식이 바뀌어도 일반 한국어트랙 신입학의 한국어 기준은 TOPIK 3급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TOPIK 3급에 해당하는 언어 수준은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 언어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지난 3월 우리신문 관련 취재에서는 TOPIK 4급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도 수업을 들을 때는 AI나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2023년부터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업역량강화과정(학강)이 입학 첫 학기에 그치고 공통된 교육 내용을 관리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학강은 TOPIK 4급 이상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자율전공학부가 학강의 교육과정 운영을 맡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방식은 국제처가 사실상의 운영을 맡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강사 채용과 발령을 담당했다. 주무 부서가 명확치 않고, 지정된 공통 교재와 수업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자율전공학부는 올해 상반기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강사 워크숍을 통해 수업 내용과 교육방식을 공유하는 구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보다 대학 학업에 필요한 '학문 목적 한국어'에 초점을 맞춘다. 학술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익히고 이를 읽기·쓰기·토론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자율전공학부 이정희 학부장은 "일반 목적 한국어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는 다르다"며 학문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대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교재는 3급 수준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자율전공학부는 4급 수준의 후속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낮은 수준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배우며 전공 찾는 1년 글로벌열린전공 첫 운영

학강 개편과 함께 올해 2학기 자율전공학부 글로벌열린전공도 첫 운영을 시작했다. 첫 모집에는 93명이 지원해 45명이 최종 등록했다. 글로벌열린전공은 입학 단계에서 특정 TOPIK 급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인 신입생이 1학년 동안 한국어교육과 전공탐색을 거쳐 2학년 이후 희망 전공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학생들은 첫 학기에 한국어 전공기초 4개 과목을 총 10학점 이수한다. 첫 학기 이후 TOPIK 4급을 취득한 학생은 2학기 학강을 면제받고 관심 있는 전공·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4급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자율전공학부에 남아 요건을 갖춘 뒤 전공을 변경하거나 유학생 전용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년 전부터 제안된 유학생 교육체계 개선안과 맞닿아 있다. 2023년 우리신문 취재에서는 학강을 보완하고,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신입생을 별도 교육단위에서 1년간 교육한 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전공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4년 외국인 유학생 TF에서도 언어교육과 전공 진입을 위한 기초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단위가 논의됐다.

별도 단과대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열린전공에서는 한국어 수준 진단과 집중교육, 전공탐색, TOPIK 4급 취득과 전공 진입을 1학년 과정 안에서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 학부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는 1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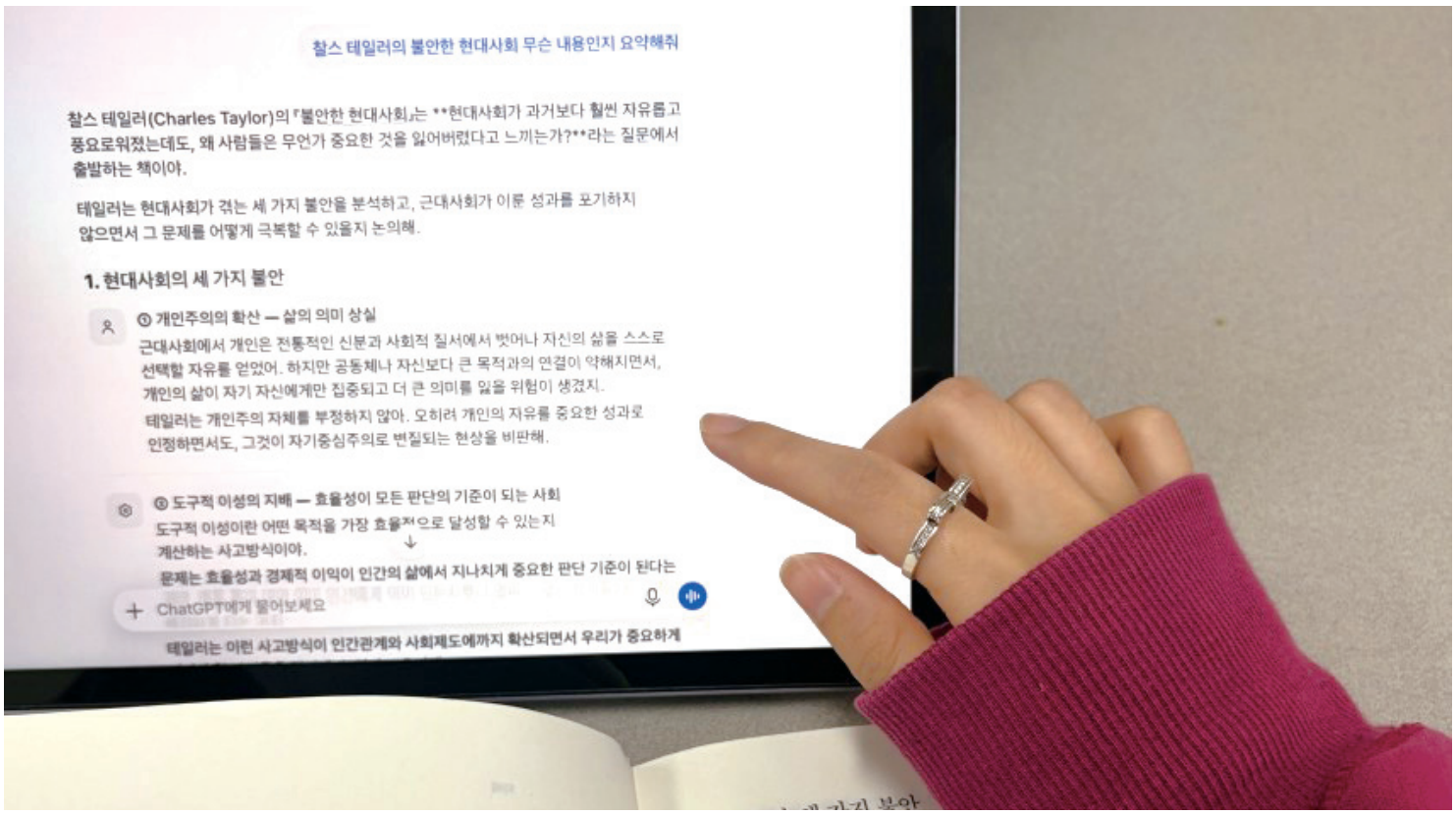
다음 회차에서는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 본부의 목표와 실제 학생을 교육하고 수용하는 단과대의 준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 학생은 무엇을 써야 하나
"과제는 도움을 받아도 생각은 대신할 수 없다"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AI가 들어온 교실
①총론
②글쓰기 · 논증

생성형 AI가 대학의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연스럽게 과제와 시험도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 학생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자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수업에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우리신문은 기획 연재 〈AI가 들어온 교실〉을 통해 ▲글쓰기 · 논증 ▲계산 · 코딩 · 문제 해결 ▲예술 · 창작 ▲실험 · 현장에서 AI가 바꾼 교육 현장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번 연재에서는 인문사회 ·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수업 풍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글쓰기 · 논증 교육의 미래를 짚어본다.



책을 읽지 않고 AI에게 책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8시간 걸린 과제 AI는 10분이면 쓴다

"저는 8시간 걸렸는데, 친구는 AI를 써서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어떤 친구는 10분, 심지어 3분 만에 레포트를 썼다고 했습니다." 철학과 전공 수업에서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던 신중혁(철학 2026) 씨는 AI를 활용한 친구들과 본인의 작성 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말했다. 신 씨는 "AI의 등장으로 수업 풍경이 확실히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씨는 과제에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는 "AI가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면 선입견이 생겨 나중에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며 "직접 원서를 읽으면서 쓰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과제를 끝내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신의 해석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주변 학생들은 텍스트북의 내용이나 개념을 AI에게 물으며 시험 공부를 하고, 과제 작성에도 AI를 활용한다고 했다. 신 씨는 "제 전공인 철학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안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AI 사용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AI가 쓴 글에서 느껴지는 특징을 설명하며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의 표현을 빌렸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신 교수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AI가 쓴 글은 매끄러운 것을 넘어 미끌거려 아무것도 쥐지 못한다"며 "읽고 나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인간이 쓴 글과 AI 글을 가르는 차이로는 '경험력'을 꼽았다.

신 씨는 이에 공감하며 "AI가 생성한 글은 문장이 정돈돼 있고 읽기 쉽지만,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쓴 글에서 느껴지는 투박함과 고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고뇌했는지가 글에서 느껴질 거라 믿어 과제는 되도록 직접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태린(국어국문학 2026) 씨는 에세이를 쓸 때 소재를 찾거나 구성을 짜고, 문맥을 다듬는 데 AI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책이나 논문을 요약하는 과제를 할 때는 "요약하려면 스스로 한 번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읽어야 할 논문이나 책의 분량이 많은 경우엔 핵심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고, 배경지식을 찾거나 요약의 구성을 잡는 건 AI의 도움을 받는다. 문법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거나, 교수님이 수업에서 예시로 든 작품의 내용을 곧바로 알고 싶을 때 검색 용도로도 자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제가 쓴 글을 AI에 매끄럽게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AI가 써준 글을 제 문체로 수정하기도 한다"며 "둘 다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I가 제안한 문장도 자신의 문체에 맞게 다시 다듬고,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은 진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전준표(국어국문학 2026) 씨도 자료 검색과 맞춤법 검사, 논리 흐름 점검에 AI를 활용한다. 전 씨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하는 과제에서는 AI를 주로 퇴고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양이 중요하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과제에 한해서는 전부 AI로 작성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김은하(한국문학) 교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90% 가량이 AI를 사용하는 걸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일부는 AI로 글쓰기 과제의 초안을 만든 뒤, 본인들의 흔적을 가한 후 과제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문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공부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글의 완성도는 높아지는데 학생의 생각은 흐려진다

교수들에게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가운데 특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물었다.

김 교수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읽고 주인공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쓰는 과제를 냈던 경험을 떠올렸다. 원작에서 안티고네는 반역자로 규정된 오빠의 시체를 야생동물에게 먹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한 학생의 답안에는 전혀 다른 갈등이 등장했다. 김 교수는 "안티고네가 배우를 꿈꿨지만 부모가 반대해 갈등했다는 식으로 썼다"며 "이에 대해 검색해보니 원작의 시대·상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내 번안극의 설정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과제로 낸 소논문 본문과 각주에 존재하지 않는 책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학과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가 쓴 책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책이 인용돼 있어 한참을 찾았다"며 "학생에게 이 책의 정체를 물었더니 AI를 활용해 작성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국어국문학과(국문학) 정기인(현대문학) 교수는 몇 년 전, 첫 문장이 같은 레포트 5편을 받았다. 정 교수는 "그 충격으로 다음 학기부터 수업에서 레포트 받기를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학생들의 과제에서 AI 활용 여부는 어느 정도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과제를 평가할 때마다 AI 활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학생과 교수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AI가 더욱 더 발전했을 때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지 못할 두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제출된 글만으론 부족하다 평가는 글 밖으로

이렇듯 AI 활용이 본격화되며 교수들은 지필고사 배점을 높이거나 토론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민 교수는 "AI를 활용한 과제들이 대체로 훌륭해 변별하기 어렵다"며 과제 배점을 줄이고 지필고사 배점을 높였다고 말했다.

8면에 계속 ➡

7면에서 계속 ➞

김 교수는 토론에서 대안을 찾았다. 과거에는 글쓰기를 학습의 최종 단계로 여겼지만, 이제는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토론하며 내용을 한 번 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각자 글을 읽어온 후 드는 생각을 학생이 써온 글로 받기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현장성을 띠는 인클래스 토론을 진행하면, 학생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몇 년 간 레포트 과제를 받지 않았으나, 글을 쓰고 싶다는 국문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지난 학기부터 다시 레포트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학생의 이해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레포트를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에게 첨삭을 받듯 수업 시간에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 교수의 대응은 달랐으나, 단순한 과제만으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김 교수는 수업·과제의 성격에 따라 AI 활용 가능 범위와 평가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학생들이 적절한 AI 활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에도 남겨야하는 인문학의 핵심 소양은

AI가 일상화된 지금, 교수들은 사고력과 상상력,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성찰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영(행정학) 교수는 독서의 첫 번째 목적은 내용 숙지가 아닌 독서를 통한 경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는 내용 숙지를 돕지만, 이는 부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도움을 줄 뿐,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성찰하는 진짜 공부엔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교수 또한 "자신과 다른 관점의 생각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전통적으로도, 앞으로도 핵심소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고, 글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하 교수도 "과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과제 제출이 아닌 수행 과정 중 직접 글을 읽고 성찰하는 과정"이라 말했다.

글쓰기 교수법 연구로 저명한 배재대 김화선(현대문학) 교수는 이 같은 역량을 기르기 위해 타인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를 활용하더라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질문하고, 답변을 자기 생각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과 토론하며 생각을 구체화하고, 직접 경험한 상황을 글에 담도록 돕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의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쓴 초고에 학생 튜터가 조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쳐 쓴 원고에 담당 교수가 추가 피드백을 준다. 김 교수는 "글쓰기 실력은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에서 자라기에 이러한 과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I는 학생의 글을 교정, 첨삭해주는 과정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김 교수는 "AI는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사람은 글이 쓰인 상황과 맥락에 맞춰 구체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역시 학생이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완성된 글만으로는 학생의 생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AI가 글쓰기의 일부를 대신할수록 무엇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된 글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까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당사자능력 없어" 노조 대상 가처분 각하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산하 경희학원지부·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의 채권자인 '경희대학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자격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산학협력단과 노조 간 임금교섭이 결렬된 이후인 지난 9월 18일 이뤄졌다. 당시 학교는 9월 21일 서울캠에서 예정된 'Peace BAR Festival(PBF)'을 앞두고 있었으며, 같은 날 노조도 서울캠에서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교는 노조의 집회·시위로 인한 교육·연구·행정업무 및 시설 이용 방해를 우려해 서울캠 청운관·본관·평화의 전당 등에서 특정 집회·시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노조는 PBF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21일 예정된 행사를 자진 연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노조 측은 '경희대학교'에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희대학교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설립·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김진상 총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법인 경희학원·대학·산학협력단 공동으로 가처분 추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책임자 문책 및 경질 ▲정당한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및 노조와의 갈등을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각하 결정이 또 다른 소송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만 바꾸어 동일한 목적의 가처분을 다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윤 인사처장은 학교 측 입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고나 재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결론 난 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노조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희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동반자 관계에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사진=파리 시테 대학 교환학생 김민정 씨 제공)

교실을 넘어 거리로,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
학교는 봉쇄되고 교환학생의 일상도 흔들려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이가은 기자 gaeunlee@khu.ac.kr

 # 지난 9월 17일 프랑스 파리 남동부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학교를 봉쇄했고 이후 봉쇄 움직임은 전국 수백 개 학교로 확산됐다. 두 달여가 지난 현재는 교사와 노동자,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됐다. 우리신문은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학교 교환학생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번 시위의 배경과 사회적 영향을 짚어봤다.

학교 출입문 봉쇄에 수업도 차질 교환학생 일상 흔들려

"학교는 무기한 봉쇄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간고사마저 미뤄졌습니다."

이번 학기 프랑스 라로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간 조민혁(프랑스어학 2024) 씨는 "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4개월 중 한 달 넘게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생활하는 라로셸은 수도인 파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도시에 속하지만, 시위의 영향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조 씨는 "한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출입문을 막아 등교를 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이 전면 개방 의사를 밝힌 뒤에는 시위가 더 격화됐고, 당일 오후 경찰이 출동해 시위를 진압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시위 중심지인 파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친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해 듣기도 했다. 조 씨는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며 "귀를 다치거나 길을 걷다가 최루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프랑스로 파견 간 우리학교 학생이 시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교류팀은 "2026학년도 2학기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학교 교환학생은 총 20명"이라며 "10월 20일부터 두 차례 안전 안내 메일을 발송했고, 회신한 학생 대부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생은 파견 대학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 환경 악화에 누적된 불만 전국적 시위로 이어져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전면에 나선 것은 1968년 시위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마뉘엘 바이이(프랑스어교육학) 교수는 "프랑스에서 교육 분야의 근무 여건이 40년 넘게 나빠져 왔다"라며 "2018년 이후 지금은 불평등이 뚜렷해졌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핵심 이유로 프랑스 대입 제도인 '파르쿠르쉬프'를 꼽았다. 2018년 도입된 파르쿠르쉬프는 한국 대입 전형인 수시 전형과 유사하게 대학이 학생의 성적과 평가 자료,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정시 전형과 분리된 조기 선발 전형이면서 출신 고교를 가린 채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파르쿠르쉬프는 출신 고교를 공개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이 교수는 "대체로 외곽 학교보다 부유층 학교에 유리하며, 교사가 대체되지 않아 한 학년 내내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파르쿠르쉬프의 '입학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 교수는 "2018년 파르쿠르쉬프 제도가 도입되기 전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만 통과한다면 거주지 관할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었다"며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사회적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이 엄격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인기 학과에는 학생이 몰려 예산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르쿠르쉬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교수는 파르쿠르쉬프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정원이 한정된 인기 학과일수록 대학에서 지원자를 가려내면서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교육 환경 개선 요구에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며 확산됐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홍식(정치학) 교수는 "오랫동안 누적된 정부의 구조개혁과 국민 사이의 불협화음, 마크롱 대통령과 의회의 구조로 인한 정치력 부재가 시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민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부담과 세대 간 자원 배분 갈등까지 더해지며, 상황을 사회·경제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위부터 대선까지 현지 상황 주시해야

전문가들은 내년 4월에 이뤄질 대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현재 여론 조사 구도로 봤을 때 극우 후보인 마린 르펜의 우세에 대해 시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안 강화와 이민 규제를 내세우는 극우에 보수화된 노년층과 중산층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이 교수 역시 "시위로 인해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시위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이 교수는 현지의 교환학생들에게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들 옆에 머물지 말고, 위협적인 경찰을 피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회 전체를 움직인 학생 운동은 1968년 5월, 1986년, 2006년 그리고 지금의 2026년까지 많았지만, 오늘날의 차이점은 경찰의 탄압이 훨씬 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늘 시위가 있지만 지금처럼 규모가 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프랑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위·파업 일정은 노동조합 또는 행정 구역별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제교류팀은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면 파견 대학에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현지 상황, 파견 대학의 학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번 시위를 이유로 교환학생 초청 프로그램을 중단한 대학은 없으며, 2027학년도 1학기 프랑스 파견 대학의 교환학생 선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류팀은 "향후 현지 상황이나 파견 대학의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문의 전당 '경희'의 심장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㉓
『중앙도서관❶』

여행 중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 볼까? 요즘엔 방문객을 위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많은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만큼 도서관은 그 대학을 대표하는 공간이자, 대학이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 도서관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곳은 1968년 6월 문을 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의 역사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5월 대학을 인수한 후 부산 동광동에 마련한 교사가 1953년 1월 화재로 전소된 후, 경희는 불과 2개월 만에 동대신동에 새 캠퍼스를 마련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흙과 돌을 나르고, 산허리를 깎아 만든 학교터에 강의실 7개와 강당이 있는 교사 1동, 본부 건물 1동, 도서관 1동을 지었다. 당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 중에 단독 건물로 된 도서관을 갖춘 곳은 우리 대학이 유일했다고 한다.

우선 도서 700권을 구입해 장서를 갖추고, 도서 수집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때는 전쟁 중이다. 국내에선 그것도 어려워 해외 200여 대학에 도서 기증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미국 로렌스대학은 600여 권의 도서를 보내왔고, 그 외에도 책을 기증한 대학이 상당수 있었다. 우리는 답례로 설립자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를 보냈다고 한다.

1954년, 서울 환도 후 본관, 임시교사, 대학원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도서관 건립을 서둘렀다. 당시 명칭은 '임시 도서관'이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세운 등용문과 함께 무척 공들여 지은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한다. 1955년 4월 완공된 임시 도서관은 캠퍼스 서남쪽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지금의 국제교육원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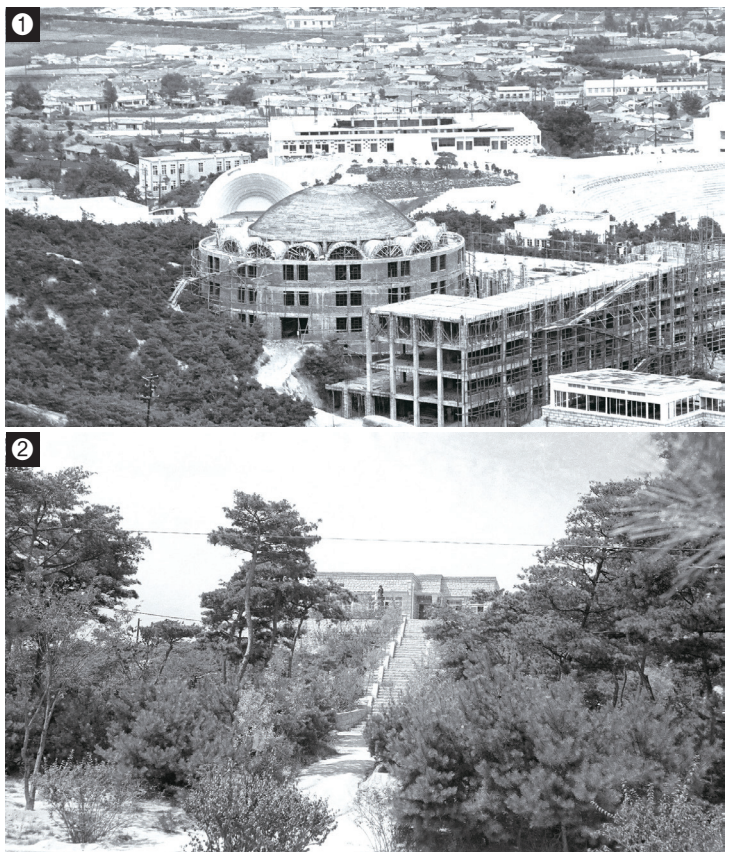
대학이 성장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도서관 이용자도 증가했다. 임시 도서관만으로는 너무 좁았다. 추가로 본관 석조전 옥상에 도서실을 만들어 열람실로 사용했다.

당시 총장이었던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더 이상 종합도서관 건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멋지고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두 차례나 설계를 현상공모 했다. 하지만, 응모작들은 하나같이 구태의연하고 고루했다. 자매교였던 미국 마이애미대학 건축학과에 설계를 의뢰해 보기도 했다. 결과물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긴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못 미쳤다. 결국 설립자가 직접 설계에 나섰다.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물론 강당, 대사원, 궁전, 박물관의 건축 자료를 참고해, 그가 4개월에 걸쳐 설계한 것이 지금의 중앙도서관이다.

1960년 10월 30일 건설의 첫 삽을 떴다. 공사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총장, 학장들로 조직된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건축 상황을 점검했다. 보직자들이 한 몸이 되어 중앙도서관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착공 후 2년 만에 열람실 일부를 오픈했고, 1964년 4월 건물 외곽을 완성했을 때 1차 준공을 하고 부분 사용을 시작했다. 1968년 6월 17일, 착공 8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보았다. 학문의 전당 '경희'를 상징하는 공간의 탄생이었다.

완공 바로 다음 날, 중앙도서관 원형열람실에서는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 개회식이 열렸다. 34개국 105명의 총장을 포함한 156명의 석학들, 박정희 대통령과 문교부장관, 주한외교사절 등 외빈 300여 명, 국내외 보도진이 원형열람실을 가득 메웠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한국은 어떤 언어를 쓰나. 일본어를 쓰는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 정도였다. 그런 시절, 세계 각국에서 온 총장, 석학들의 눈에 우리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보였을까? 행사장에 들어선 그들의 연이은 감탄사가 그 답을 대신하는 것 같다.



①중앙도서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60년대 서울캠퍼스 풍경 ②1955년 완공된 임시 도서관의 모습, 지금의 국제교육원 자리다.

한반도에 가두기엔 너무 넓었던 발해 강인욱 교수 유라시아 문명으로 다시 읽다

김이현 기자 kimyihyun@khu.ac.kr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발해'는 오랫동안 독자적 문명보다 역사의 귀속 문제로 주목받아 왔다. 우리학교 사학과 강인욱(역사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강인욱의 유라시아 빅히스토리』를 통해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발해를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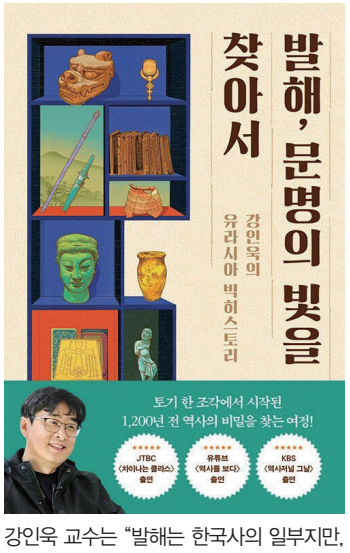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만주 일대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추진하며 발해는 한·중 역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동북공정은 2007년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장백산 문화론', '일대일로' 등 역사 공정은 진화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오가며 발해와 주변 지역의 역사를 연구해 온 강 교수는 "발해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발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 2009년 출간된 『춤추는 발해인』이다. 강 교수는 발해라는 국가 자체를 넘어 발해가 존재했던 지역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번 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책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교수는 동료 박사로부터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몽골 제국의 위구르계 토기가 발해 성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해와 몽골의 위구르 제국과의 교류 흔적을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이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짜릿하게 등골이 오싹해졌다"면서 "그 순간 『춤추는 발해인』의 2탄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강 교수는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지만, 한국사에만 가두기에는 너무나 넓은 세계를 만들었다"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북극을 잇는 발해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강 교수의 답사·발굴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1·2부는 발해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발해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교류한 흔적, 수출이 활발했던 특산품인 인삼, 이순신 장군 신화의 시작점인 녹둔도 등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라시아 역사를 다룬다. 3부에선 우리 역사에서 소외됐던 말갈과 여진, 거란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리고 4부에는 발해·연해주·조선 등을 연구한 러시아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강 교수는 "1부를 열정으로 썼다면, 4부는 마음으로 썼다"며 "우리 역사에 공헌했지만 가려진 사람들에 대한 찬사를 4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약 2년 전부터 중국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발해와 만주 역사를 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AI에 해당 역사에 관한 중국의 논거를 학습시켜, 사용자가 '발해 역사'를 물으면 중국의 논거만을 답하도록 한 것이다. 강 교수는 "중국의 주장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우리가 발해 역사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왜 발해가 한국사일 수밖에 없는 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냈다.

강 교수의 다음 목표는 말갈과 북한 등 우리 역사 속 빈 부분을 채우고 우리 역사를 세계의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민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관점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며 강원도에도 살았던 말갈인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책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비어 있어 남한과 만주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북한 지역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는 한국사의 경계를 넘어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독자적 문명 체계를 성립한 발해를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일부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다.



강인욱 교수는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지만, 한국사에만 가두기에는 너무나 넓은 세계를 만들었다"며 더 넓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사설

AI가 바꾼 강의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였던 '세무냥이'의 부정행위 자수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큰 파장을 일으킨 자백 이후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간 시험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AI와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에서 얻은 점수가 과연 응시자의 실력을 온전히 증명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사람마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묶은 '커닝 세트'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렸고, 심지어는 일부 판매처에선 품절됐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111명으로, 그중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다.

시험과 평가로 작동하는 공간인 대학에서도 AI를 둘러싼 부정행위와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도 시험 중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우리학교에서는 한 교수가 당장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의 뽈테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I와 스마트기기의 발전이 대학의 시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고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AI 사용을 금지하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톱에 부착하는 카메라부터 머리카락 굵기만큼 가는 카메라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 수법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 AI가 답을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생성형 AI가 과제의 자료 조사부터 글쓰기까지 대신할 수 있게 되며 제출된 결과물만으로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이해하고 사고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완성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생이 생각을 발전시킨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역량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학교가 배포한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역시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아이디어 발전과 검증, 수정 과정 등을 함께 살피도록 권고하고 있다.

AI는 이미 강의실에 들어왔다. 이를 부정하거나 막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다. 그동안 대학이 어떤 평가 방식이 공정한지만을 고민해 왔다면,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에도 대학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공약, 구체화해야 할 때

공약을 판단하려면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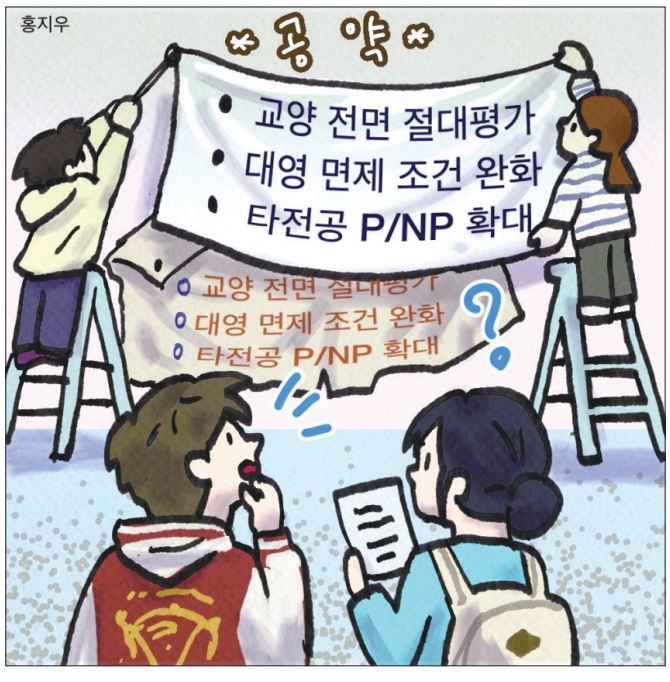
총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는 각 캠퍼스에서 하나의 선거운동본부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정책공청회 취재를 준비하며 양캠 총학생회 선본의 정책자료집을 훑어보니 익숙한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교양과목 전면 절대평가 추진, 대학영어 면제 조건 완화, 타전공 P/NP 확대 등 이전 총학생회에서 꾸준히 제시해 왔던 공약이다.

4학기째 기자 활동을 하며 지켜본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학교나 외부 주체와의 협의로 이끌지 못했다. 규칙 개정이나 단순한 요구안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공약이 매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기존 공약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고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공약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제시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25%를 세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총장 선출제에 참여하는 주체가 4개라는 이유만으로 각 주체에 동일한 비율을 배분한 것이다. 일부 공약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당선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수치의 산정 근거나 공약 이행에 따른 효과, 그리고 당선 후 논의할 사안과 절차는 여전히 희미했다.

공약이 이행되고 실제 학내 변화로 이어지려면 선거운동본부 단계부터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가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정식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전 모든 공약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공약을 내건 후보라면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한계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만평 반복되는 공약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태영특수프린테크

세시봉

취업 한파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3학년이면 취업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24학번, 벌써 4학년을 앞두고 있다. 주위 가족이나 교수님이 이젠 취업을 이야기한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던 취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음... 저는 되는대로 가려고요." 아직 뚜렷한 계획도,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인턴 경험이나 어학 성적도 없는 나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다.

취업을 잘 모르는 나는 취업하려면 일단 어디든 지원서를 넣어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지원서를 낼 곳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한 42.9%를 기록했다. 벌써 30개월째다. 청년 취업자도 19만 6천 명 감소했다.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과 달리, 정작 우리가 들어갈 문은 좁아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청년층 일자리 감소분 28만 5천 개 중 26만 8천 개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AI만으로 취업난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기업은 신입을 교육하기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이 맡던 기초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기업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신입은 취업하지 못하면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준비하고, AI 활용법까지 익힌다. 그런데 정작 그 AI가 우리가 처음 맡을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첫 경험을 쌓아야 할까.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청년이 사회에 진입할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요구하기 전에, 그 경험을 시작할 자리가 남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 취업을 위해 AI를 배우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AI 때문에 취업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민설 씨는 “연구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김재희 기자)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는 무엇일까
의료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 장민설 씨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 ⑨
약물경제 및 데이터분석학 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앎’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아홉 번째 주인공은 약물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삶에 개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약학과 장민설(석박통합 6기) 씨다.

운명적으로 느껴진 연구자의 길

학창시절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장민설 씨는 디자이너의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시간 교과서로 접한 생물학이 장 씨를 사로 잡았다. 장 씨는 “DNA와 RNA, 생물의 발생과 진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무척 재미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생물학 전공을 택했지만, 장 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실험을 반복하며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장 씨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까마득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기초과학인 생물학이 생명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라면, 약학은 당장 고통받는 환자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었다.

약학과로 전향한 뒤, 졸업을 앞둔 장 씨를 대학원 진학으로 이끈 건 연구실 인턴 경험이었다. 학부 시절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참가할 만큼 코딩에 흥미가 있었던 장 씨는 데이터 프로그래밍이 접목된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분석학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장 씨는 논문을 읽고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연구자들이 질문을 세우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 장 씨는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연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씨가 고등학생, 학부생이던 시절에 쌓은 경험은 뜻밖에도 대학원 연구에 밑바탕이 됐다. 장 씨는 “디자이너의 꿈을 접은 뒤에도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약학과 재학 당시엔 공부하려고 독서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른 그림, 글쓰기 역량들이 대학원 연구에 유용하게 쓰여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취미는 연구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책을 읽으면 기른 논리력은 논문의 주장을 근거에 맞춰 풀어가는 데 큰 힘이 됐다.

결정적으로 장 씨가 연구를 운명처럼 느꼈던 순간은 연구의 포럼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때였다. 장 씨는 “처음으로 직접 계획하고 마무리한 연구를 발표하러 간 곳이 마침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를 쓰는 도시였다”며 “이제까지 나의 삶이 연구를 위한 것이었나 싶었다”고 말했다.

환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연구 고민이 연구 질문이 된다

장 씨는 자신의 전공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 분석학은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나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같은 실제 의료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해 치료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다.

연구의 즐거움을 확신하게 된 건 대학원에 들어와 처음으로 완주했던 '임신 중 약물 노출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였다. 장 씨는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연구가 끝나고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며 “연구 질문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글로 옮기는 연구의 전 과정을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연구가 재밌어지자, 일상 곳곳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본인의 모습도 발견했다.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살핀 연구도 그중 하나다. 장 씨는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국가와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의료 이용과 비용, 환자의 중증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장 씨는 새로운 연구 질문을 떠올린다고 밝혔다. 장 씨는 “아직은 비밀이지만 다음 연구 주제도 이미 생각해 놓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장 씨의 연구에는 치료 이후의 삶까지 헤아리려는 시선이 담겨 있다. 현재 장 씨는 유방암 치료 부작용 중 하나인 림프부종이 환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 중이다. 장 씨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유방암 환자의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림프부종이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림프부종이 더 자주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의 주제에 천착해야 하는 연구 특성상, 연구자들은 스스로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장 씨 또한 같은 느낌의 순간이 있었다. 장 씨는 “연구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회사나 병원에서 다른 일을 경험해 봐야 하는 건 아닐지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연구야말로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다. 장 씨는 “계속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이 생기고, 새롭게 적용해 보고 싶은 방법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 씨에게 있어 대학원은 자신의 세상을 더 넓혀주는 과정이다. 장 씨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직접 경험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장 씨에게 있어 대학원은 자신의 세상을 더 넓혀주는 과정이다. 장 씨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나,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게 대학원 과정”이라며 “더 넓은 세상에 서 있을 미래의 자신에게 결정을 맡기고자 한다”고 답했다.